



Analyst 권순우 · 02-3773-8882 · soonwoo@sk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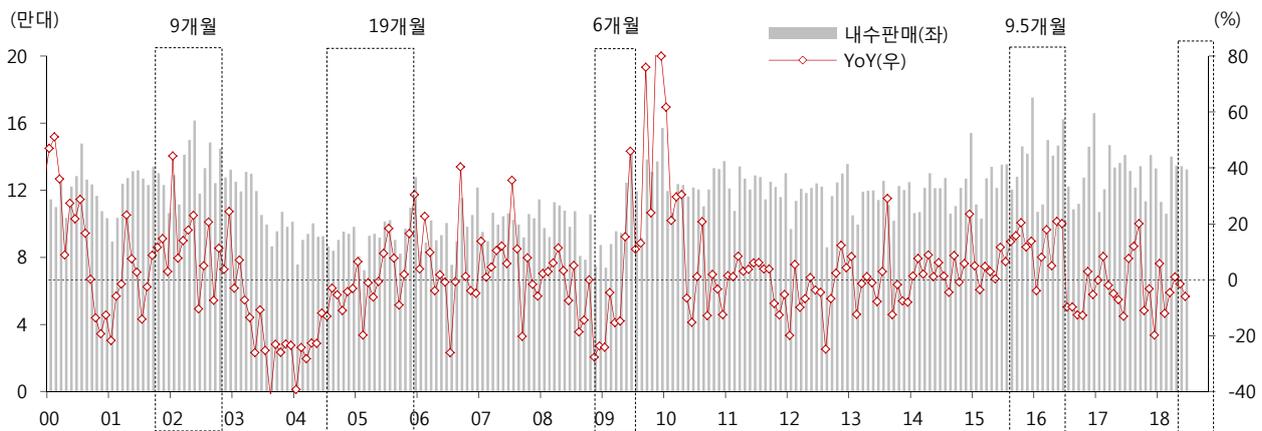


- ✓ 연말까지 자동차(경차제외) 등에 개별소비세 인하 발표 (현행 5%→ 3.5%)
- ✓ 글로벌 수요환경을 감안하면, 국내공장 가동률에 긍정적 요인
- ✓ 다만 과거 개별소비세 종료 후 발생한 내수 부진을 감안하면 중장기 관점에서 중립적 이슈로 판단

### [자동차] 개별소비세 인하, 글로벌 수요환경을 감안하면 국내공장 가동률에 긍정적

- 18일 정부는 '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·소득지원대책'을 발표. 하반기 고용약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1)연말까지 자동차(경차 제외), 이륜자동차, 캠핑용자동차 등에 개별소비세 인하(현행 5%→ 3.5%)와 2)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,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% 감면 계획을 밝힘
- 정부에서는 금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해 자동차 구매자의 비용 절감 및 중소기업의 부담 감소 등의 혜택이 발생함과 동시에 민간 소비가 0.1~0.2%p, 국내총생산(GDP)은 최대 0.1%p 오를 것으로 예상
- 관세이수가 계속되고 있는 선진시장과 하반기 수요둔화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,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한 내수 활성화는 긍정적. 수출물량이 내수로 일부 이전되며 국내공장 가동률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는데 기여할 전망
-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이후 통상적으로 선수요 발생에 따라 판매가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 관점에서 중립적 이슈로 판단

자동차 내수판매 추이 -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수요 증가, 이후 선수요 발생에 따른 감소 진행



자료: KAMA, 언론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